

보도시점 2024. 1. 12.(금) 09:30 배포 2024. 1. 12.(금) 09:00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먹거리 물가 안정 노력 강화

-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격불안품목 점검 및 대응조치 논의
- 대파 3천톤 할당관세 신속 도입, 수입 신선란 112만개 할인판매 개시
- 2월부터 외식업체육성자금, 양식어가 전기요금 등 지원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1.12.(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주재),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식약처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판매가격 인하(배럴당 2불 수준) 등 영향으로 70불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나, 농산물의 경우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 국제유가(달러/배럴 두바이): (23.9)93(11)83(12)77 (24.1.10)78, 휘발유(원/리터): (23.9)1,769(11)1,684(12)1,600(24.1.10)1,569

** 주요 농축산물 가격(% , 1.10일): <전년비>(돼지)△4.8(닭) 2.5(사과)29.4(감귤)30.8(대파)21.5(오이)20.1
<전월비>(돼지)△4.4(닭)△1.1(사과) 5.6(감귤)22.4(대파) 9.3(오이)47.0

오늘 회의에서는 겨울철 농축산물 가격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안정 조치들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였다. 기상여건 악화로 가격이 높은 대파는 납품단가 지원을 1월초부터 500원에서 1천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를 통해 1월 중순부터 3천톤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 112만개도 1.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4,990원/30구 수준)에 공급하고 있다.

연초 가격조정이 많은 식품·외식 등 가격상황도 점검하는 한편, 식품·외식 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외식업체에 대한 운영·시설 자금 등을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 예산은 전년보다 2배 확대(150→300억원)되었고,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 대출금리 : (운영자금) 2.5~3% (시설자금) 2~3% /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시설 1억원 이내

아울러 2월부터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융자금 4,500억원)하고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가구당 최대 44만원)도 새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사무관 이은우 (felizlew@korea.kr) 사무관 성지현 (jeeeee629@korea.kr) 사무관 이준혁 (leejh23@korea.kr)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책임자	팀 장	장용희 (044-215-2931)
		담당자	사무관 김정호 (ddyjd@korea.kr)	